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이코노미스트, “다음주 한번 더 금리 인상” 22년 만에 최고치
- Bloomberg: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2개월래 최저치
- Bloomberg: 미국, 인프라 경쟁에 뛰어든다
- WSJ Real Time Economics: 미국 기후법의 가장 큰 외국기업 승자는 한국 등 - 극심한 더위에도 천연가스 가격 오르지 않아

[미국 금융]

- WSJ: 연준의 FedNow 결제 시스템 보급에 수년 걸릴수 있어

[뉴저지]

- North Jersey: 뉴저지 주지사, 2035년까지 가솔린차 금지 추진

[주택]

- CNN Business: 올해 미 전체 주택 1%만 소유자 바뀌었다

[중국 경제]

- The Economics: 중국 경제 얼마나 심각한가?

[테크]

- WSJ: 기업과 노동계 단체 대립... 이유는 직장내 AI 역할
- WSJ: Apple “iOS 17에 실시간 음성 메일 기능 추가 예정”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Bloomberg: TSMC, 올해 매출 전망 하향 조정
- CNN Business: Starbucks “블랙핑크와 협력한다”
- CNN Business: Netflix, 비밀번호 공유 단속, 유료 구독자 6백만 명 추가
- WSJ: AA 항공사, 해외 여행 수요 늘어 수익 전망 상향 조정

[보고서]

- J.P. Morgan Perspectives: 글로벌 공급망 혼란: 아세안, 인도, 멕시코 등
* 원본은 회원사에게만 제공됩니다. 원하실 경우 office@kocham.org 혹은 kenmin@kocham.org로 연락 바랍니다.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Fed Seen Hiking Final Time to a 22-Year Peak in Economist Survey

이코노미스트들, “다음주 한 번 더 금리 인상”... 22년 만에 최고치

- 블룸버그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,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. 연준이 40년만에 가장 공격적으로 인플레이와 싸워온 16개월간의 인상 사이클을 끝내게 되는 시점이라는 것.
- 즉, 연준은 이달 25~26일 회의에서 0.25% 인상해 2021년 이래 최고 치인 5.25%~5.5%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.

- 9월 회의에서는 지난달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 인상치 않을 것으로 보이며, 11월 회의에서 한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자는 5분의 1에 불과하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US Applications for Jobless Benefits Fall to Two-Month Low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2개월래 최저치

- 2개월만에 최저치로 청구건수가 떨어져 일자리 증가에 완만해지는 상황에서 근로자 일자리 수요가 여전히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.
- 지난 7월 15일 끝나는 주의 청구건수는 9천개 낮아진 22만8천건으로 나타났다. 연방 노동부는 오늘 금요일 발표했다.
- 1주일 이상 실업 수당을 현재 받고 있는 이들은 3만3천건 늘어난 1백75만건으로 3개월 이상 기간중에 가장 큰 숫자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US Tries to Get Into the Infrastructure Race 미국, 인프라 경쟁에 뛰어든다

- 미국은 지난 수십년간 통근자, 관광객, 기업, 의원들을 통해 미 전역의 도로, 철도, 교량의 노후상태에 불만이 쏟아졌다.
- 반면에 유럽과 아시아는 새로운 고속철도와 항구 건설을 해왔다.
-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초당적 지지를 받아 1조2천억달러의 인프라 투자 일자리 법안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도로가 개선되기 시작하고 있다. 대표적으로 신시내티와 켄터키주 사이 오하이오 강을 가로지르는 Brent Spence 브리지가 대표적이다.
- 그러나 전반적인 투자 규모는 중국과 같은 무역 경쟁국에 투자한 금액에 비해 규모 면에서 갈 길이 먼 상태다.

Bloomberg 기사

WSJ Real Time Economics: 미국 기후법의 가장 큰 외국기업 승자는 한국 등 - 극심한 더위에도 천연가스 가격 오르지 않아

[미국 기후법의 가장 큰 외국기업 승자는 한국 등]

- 기후법으로 인한 청정 에너지 산업 구축에 정보 보조금이 들어가면서 이의 가장 큰 수혜자는 외국기업들로 나타났다. 1천1백억불이 투자되었는데 한

국, 일본, 중국 등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전체 지출의 60% 이상 차지. 배터리 공장 가장 큰 투자 규모 20개중 15개는 거의 모두 해외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.

[극심한 더위에도 천연가스 가격 오르지 않아]

- 벤치마크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7월보다 30% 낮은 가격이다. 작년 겨울 따뜻한 겨울로 공급이 적었으며 강력한 재생 에너지 발전 덕분에 가스 화력 발전소에 대한 수요 압력이 줄어들었다.

[미국 금융]

WSJ: Fed Wants Paychecks to Hit Bank Accounts in a Flash 연준의 FedNow 결제 시스템 보급에 수년 걸릴수 있어

- 연준은 오늘 목요일에 청구서 지불, 급여 및 기타 일반적인 소비자 또는 기업 이체를 24시간 내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FedNow 시스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. 수년동안 걸렸던 프로젝트였다.
- 연준의 입장에서는 새롭고 빠른 결제 시스템을 통해 미국 은행 고객이 거의 즉시 돈을 주고 받을 수 있기 원하지만 더 빠른 네트워크가 크게 보급되면 수년이 걸릴수 있다는 것이다. 초기 시점에는 대출 기관과 협력하는 소수의 은행, 신용 조합, 기타 기업들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.

WSJ 기사

[뉴저지]

North Jersey: Murphy moves to halt new gasoline car sales in NJ by 2035. Can it really happen?

뉴저지 주지사, 2035년까지 가솔린차 금지 추진

- 뉴저지 머피 주지사는 지난 2월에 약속한 향후 가솔린차 금지와 관련해 이번 주에 뉴저지에서 2035년까지 모든 신차, SUV 및 경트럭 판매를 무공해 차량으로 의무화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.
- 구체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가 향후 10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새로운 무공해 차량 판매 비율을 늘릴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. 따라서 2035년까지 가솔린 차량의 판매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.
- 이와 관련 올해 10월 20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진행될 예정이다.

North Jersey 기사

[주택]

CNN Business: Just 1% of all US homes changed hands so far this year

올해 미 전체 주택 1%만 소유자 바뀌었다

- 관련 기관 Redfin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전체 주택의 1%만이 소유자가 바뀌었다.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.
- 올해 상반기에는 기존 주택 1천 채 중 약 14채만이 소유자가 바뀌었다. 2019년에는 1천 채 중 19채가 바뀌었다. 이는 주택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택 수가 28% 감소했음을 의미한다.
- 올해 판매된 주택이 적은 이유는 시장에 매물이 많지 않고, 사람들이 높은 모기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.

CNN Business 기사

[중국 경제]

The Economist: How much trouble is China's economy in? 중국 경제 얼마나 심각한가?

- 올해 2분기 GDP는 1분기에 비해 성장률이 0.8%에 불과했고, 연간 성장률은 3.2%에 머물러있다.
- 성장의 걸림돌은 외부적, 내부적 이유가 있다. 6월에 중국 수출의 달러 가치는 작년 동월에 비해 12% 이상 크게 감소했다.
- 부동산 시장 회복은 어둡다. 6월 아파트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27% 줄었다.
- 중국 상품과 서비스 가격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.
- 막대한 부양책을 예전에는 펼쳤지만 지금은 그것을 서두르지 않는 것 같다. 관계자들은 중국 국무원이 7월 14일 이후 구체적인 재정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하지 않아 실망했다.
- 중국 당국자는 여전히 5%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믿고 있을 수 있다. 정부의 조심스런 입장은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.
- 지금까지 중국 경제의 재개는 노동 집약적인 요식업과 같은 서비스 산업이 주도해왔다.
- 최근 노동시장이 약간 회복된 것은 경제 모멘텀의 후행 지표가 될 수 있다. 성장세가 계속 약하면 실업률은 결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.

The Economist 기사

[테크]

WSJ: Business and Labor Square Off Over AI's Future in American Workplace

기업과 노동계 단체 대립... 이유는 직장 내 AI 역할

-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ChatGPT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. 이는 미국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갈등, 미국 기업과 노조의 대립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.
- 기업들은 ChatGPT와 같은 생성 AI를 통해 직원 수를 줄이려고 한다. AI 기반 봇은 개별 맞춤형 광고 제작과 실시간 대화에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다.
- 노조, 개인정보 보호 옹호 단체, 소비자 단체도 AI의 잠재적 기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. 하지만 AI가 일자리를 없애고 근로 조건을 저하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.

WSJ 기사

WSJ: Let's All Start Leaving Voicemails Again!

Apple "iOS 17에 실시간 음성 메일 기능 추가 예정"

- 곧 출시될 애플 iOS 17에 '실시간 음성 메일'이 추가된다. 이는 발신자가 음성 메일을 남길 때 실시간으로 음성 메일의 텍스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.
- 새로운 통화 관리 기능인 '실시간 음성 메일'은 메시지 중간에도 전화를 받을 수 있다.
- iOS 17은 지난 주 공개 버전으로 출시 되었다. 9월에 모든 고객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애플 관계자가 말했다.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Bloomberg: TSMC Cuts 2023 Outlook Ahead of Delay to Marquee US Project

TSMC, 올해 매출 전망 하향 조정

-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인 TSMC가 올해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. 또한 애리조나 공장의 생산 시작을 2025년으로 연기했다.
- 이는 극심한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칩 제조업체의 입장을 말해 주고 있다.
- TSMC의 매출 하향 조정은 글로벌 전자제품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.
- 또한 노동력 부족과 비용 상승으로 인해 미국에서 칩 제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CNN Business: Starbucks teams up with Blackpink, betting on the power of K-pop

Starbucks “블랙핑크와 협력한다”

- 스타벅스가 오늘 목요일 블랙핑크와 협력해 새로운 음료와 상품 라인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.
- 블랙과 핑크가 조화를 이룬 ‘블랙핑크 딸기 초코 크림 프라푸치노’가 이번 라인의 주 상품이다.
- 다음 주 화요일 일부 매장에서 블랙핑크 테마의 음료와 텀블러, 열쇠고리 등의 액세서리 컬렉션이 함께 출시될 예정이다.
- 이 라인은 홍콩, 인도네시아, 한국, 필리핀 등 아시아 9개국의 4천 5백 개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.

CNN Business 기사

CNN Business: Netflix adds nearly 6 million paid subscribers amid password sharing crackdown

Netflix, 비밀번호 공유 단속으로 유료 구독자 6백만 명 추가

- 넷플릭스의 비밀번호 공유 단속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
- 이 회사는 6월까지 3개월 동안 약 6백만 명의 유료 가입자가 추가 됐다. 전 세계적으로 총 2억 3천 8백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한 것이다.
- 넷플릭스는 현재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‘유료 공유’를 시작했다고 밝혔다. 유료 공유란 사용자가 다른 사람과 무료로 계정 공유를 중단하도록 단속하는 것이다.
- 이를 통해 수익이 유료 공유 시작 전보다 높아졌으며, 현재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자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.

CNN Business 기사

WSJ: American Airlines Raises Profit Outlook as Demand for Trips Abroad Heats Up

AA 항공사, 해외 여행 수요 늘어 수익 전망 상향 조정

- 아메리칸 항공이 해외 여행 수요 증가로 올해 수익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.
- 이 회사는 141억 불 매출을 기록했다. 이는 전년 대비 약 5% 증가한 것이다.

- 국제선 수익은 분기 중 22% 증가했다. 반면에 국내선 수익은 1% 미만으로 증가했다.
- 아메리칸 항공은 올해 수익 전망을 주당 2.50~3.50불에서 3.00~3.75불로 상향 조정했다. 여행 수요 급증과 연료비 하락 덕분이다.

WSJ 기사

[보고서]

J.P. Morgan Perspectives: The great supply chain disruption: ASEAN's rise, India's potential, USMCA and Chino-Latino flows

글로벌 공급망 혼란: 아세안, 인도, 멕시코 등

- 탈 글로벌화는 아직 현실이 아니지만 전통적인 무역 패턴은 무너지고 새로운 무역 통로가 생기고 있다. 다국적 기업들은 공급망 관련해 국가 안보 문제 차원에서 그 리스크 평가를 재조정하고 있다.
- G7 국가들과 미국은 중국이 오랫동안 시행해온 산업정책을 반영하고 있다. 미국의 경우 최근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으로 초당적 인프라법, IRA법, 반도체 과학법을 들 수 있다.
- 글로벌 가치 사슬이 변화하고 있는데 아세안과 북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다.
- 중국에만 투자하는 정책의 변경이 인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. 인도 인구의 급증은 긍정적이지만 인도와의 투자 협력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FDI 유치가 이뤄져야 한다.
- 러시아 전쟁은 러시아의 중국 무역 정책을 바꾸고 있다. 러시아는 서방 통제 지역을 우회하는 새로운 무역로 구축, 에너지 수출시 탈달러화, 중국으로 부터 다각화를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.
- 탈달러화에 대한 우려는 과장되지만 무역을 위한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은 커지고 있다.
- 이와 관련 러시아 전쟁은 상품 거래 결제 사용 통화를 다양화 시키고 있다. 달러 대체 결제를 말한다.
- 중남미 국가들도 미국과의 '프렌드 쇼어링'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. 멕시코는 3개국 USMCA 협정으로 경제, 무역, 금융 연결, 미국과의 근접성으로 가장 큰 수혜국이다.
- 그러나 중남미 국가들은 아세안 국가들보다 인프라 부문에서 앞서지만 제도적 건전성(institutional soundness)면에서 취약하다.

* 원본은 회원사에게만 제공됩니다. 원하실 경우 office@kocham.org 혹은 kenmin@kocham.org로 연락 바랍니다.

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

"美 인플레이션감축법 최대 수혜자는 한국·일본 등 외국기업"

WSJ "수십억달러 세금 공제 가능"...미국 자체 공급망 구축에 한계

미국이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같은 기후법을 야심 차게 도입했지만, 실제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 등 외국 기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.

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20일(현지시간) 미국은 지난해 통과된 기후법을 통해 녹색에너지 산업 구축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쏟아부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.

보도에 따르면 IRA는 통과 후 약 1천100억달러(약 139조원)에 달하는 녹색에너지 프로젝트의 원동력이 됐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org